

함경도 지역 국채보상운동
-변방의 자금이 중앙으로-
Hamgyeong-do Provincial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 The Capital of the Periphery is the Center -

김 주 용*

Joo Yong Kim

국문요약

한반도의 변방이었던 함경도 지역에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은 이 지역 거주민들 가운데 거의 모든 계층이 참여하였다는데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제국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항하여 비록 타 지역에 비하여 지역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모집 금액도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걸인부터 관직에 있는 인물들까지 참여하였다. 또한 국채보상운동가를 직접 제작하여 자연스러운 모집활동도 전개하였다. 이 지역 출신의 걸출한 인물이 이준과 이동휘도 자신들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경제독립의 확산에 동참하였다. 한반도 중심의 변연이기도 한 함경도 지역은 국채보상운동에서는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였다. 특히 참여를 통한 함경도인의 소중한 경험은 근대교육운동의 한 형태인 야학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주제어: 함경도, 국채보상운동, 모금활동, 이준, 이동휘

<http://doi.org/10.56475/ygsr.2026.31.1.1>

논문투고일 : 2026.04.24. 논문심사일 : 2026.05.19. 게재확정일 : 2026.06.05.

* 원광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부교수(E-mail: kimsu8590@wku.ac.kr)

Assistant Professor, Korean Chinese Relations Institute, Wonkwang University

목 차

I. 머리말	단체 결성과 취지서
II.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함경도의 애국계몽운동	IV. 미담사례로 본 함경도 국채보상운동
III. 함경도 각 지역 국채보상운동	V. 맺음말

I. 머리말

제국주의 시대 국가의 危難은 여러 형태로 발생하였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함경도는 역사적으로 가장 늦게 한국사의 범주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8도 가운데 가장 동북변에 위치한 함경도는 공식적으로는 태조 이성계와 그 선조들의 활동 무대였으므로 王基가 형성된 곳이라는 뜻으로 풍패지향이라 불렸으나, 실제로는 중앙 조정과 왕실에 저항하는 지역 반란이 일어난 곳이며, 유학을 중시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풍토와 기질상 무예를 중시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¹⁾

1712년(숙종 38)의 백두산 정계비 건립 이후 압록·두만강 이남 지역이 조선 왕조의 고유 영토로 재확인되었으며 함경도에 대한 영토 의식은 더욱 확고해졌다.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보장되면서 거주 인구가 늘어나는 등 지역 개발도 진행되었다. 북어를 비롯한 특산물 거래가 활발해지고 상업과 무역이 성장하여 경제적 여건도 개선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수준이 낮은 편이었으나 문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함경도 지역을 이역으로 취급하는 일반적인

1)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 지역민의 국가의식」, 『진단학보』 136호, 2021 참조..

분위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에 함경도 지역의 유력 인사들은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의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함경도가 풍패지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반역향이라는 관념과 弓馬之鄉이라는 차별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함경도는 조선의 중요한 강역의 일부이며 도민들 역시 조선민의 일원임을 인정받으려 한 것이다. 함경지역의 인사들은 왕실사적 현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참하여 함경도가 조선왕조의 중요한 근거지임을 알리려 하였고, 지역반란이 있었다 해도 지역민들이 봉기하여 주모자들을 처단하였음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변경지대라는 특성 때문에 고착된 궁마지향이라는 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마다 중앙의 주요 학자들과 학맥이 이어진 문학지사들이 있는 유교적으로 교화된 곳이라 강조하였다. 유교적 소양을 중시하는 조선의 일반적 가치가 함경도 지역에도 구현되어 있음을 알리려 한 것이다. 역사 지리적으로도 함경도는 조선 건국 전후에 새로 편입된 강역이 아니라 단군과 기자 이래 조선의 역사 문화적 특징을 잘 보존시켰다. 그리고 북방 민족의 흥기 때마다 국경 지대로서 뿐만 아니라 1870년대 이후 두만강 대안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 역시 함경도인들이 대부분이었다. 1889년 방곡령이 처음 내려졌던 곳도 함경도이다. 이는 쌀이 부족하였던 함경도에 역설적으로 쌀이 많이 유출됨으로써 지역민들의 생활의 곤궁과 이것이 조선왕조에도 그대로 연결되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인류는 역사상 전쟁과 평화를 반복하였다. 고대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민족, 국가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근대 이후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의 주전장이었다. 비단 동북아지역에만 전쟁이

국한되지 않았다. 전 세계 어느 곳도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전쟁은 승자의 독식이라는 외형상 보기 좋은 모습과 각종 재난 즉 전염병, 기근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인류의 모습을 탄생시켰다. 근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본은 구성원들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전쟁보다 더 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본의 예측은 그야말로 큰 재앙이다. 이를 극복하려는 민족적 경제적 저항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 함경도의 국채보상운동을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국채보상운동에서 각 도별 참여현황을 보면 함경도는 함북 2천여 명, 함남 6천여 명, 합계 약 8천명의 참여자가 확인되었다.²⁾ 평북, 충북이 1만여 명 수준이다. 국채보상운동의 전체적인 인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소위 근기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충남, 황해도가 높은 참여도를 보이는 것이고, 서북지방이 상당히 낮은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참여도가 높은 지역의 이유를 해명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참여도가 낮은 지역들은 또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있느냐 일 것이다. 절대수치나 상대비율 모두에 있어 전혀 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지역은 상당히 동일하다. 크게 보자면 전북 남부, 전남 중부, 경남 중서부, 경북 북동부, 강원 동부, 황해 북부, 평남 중서부와 동북부, 평북 동북부가 눈에 띈다. 함경남도과 북도는 해안지역 군들에 비해 미약하지만 일관된 참여 경향을 찾을 수 있다.

함경도 국채보상운동의 열기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액수와 참여인원 수가 적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지역별로 편차가

2) 한상구,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전국적 양상 연구」, 『인문연구』 7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141~142쪽.

많이 보인다.³⁾ 예컨대 함흥지역과 같은 도시지역의 참여도는 아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경도 전역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정학적 위치와 지형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도 국채보상운동의 열기가 스며들었다는 사실은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발행된 신문에도 여러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변경지역의 함경도에서 진행된 국채보상운동의 특징을 취지서를 통해서 분석하고 실행현황을 다루어 함경도 국채보상운동의 역사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II.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함경도의 애국계몽운동

함경도는 武鄉으로도 인식되었다. 기존에 거주하던 여진인들을 몰아내고 영토로 편입한 지역이므로 압록강, 두만강 양강 밖으로 밀려난 여진인들과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여진인들이 후금을 세우고 청으로 국호를 바꾼 후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을 조공국으로 삼은 후에도 함경도 지역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행정구역 설정이나 주민 편제, 동원체제 및 행정기구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군사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농경에 불리하여 주민들은 수렵이나 인삼 채취 등으로 생계를 이어야 했으므로 궁시나 총포를 다루거나 기마 기술을 익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여건이 서로 작용하여 함경도는 弓馬之鄉, 즉 기마와 궁술, 무예에 능한 인물들이 많은 곳으로 불렸다. 궁마지향이라는 개념은

3) 함경도 국채보상 및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는 김형목 전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원의 글을 크게 인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두며, 지면을 통해 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함경도에 무예에 능한 인물이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역 전체를 하대하는 관념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이었다.

러일전쟁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시세 변화에 부응하는 방편으로 ‘自強’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⁴⁾ 자강의 요체는 근대교육에 의한 인재양성과 殖産興業을 통한 민족자본 육성책으로 귀결되었다. 이들은 생존경쟁시대에 대처하는 최선책으로 ‘국력=힘’으로 보았다. ‘힘’에 바탕을 둔 부국강병과 문명사회 건설은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기초 중 하나였다.⁵⁾ 서우·한북흥학회·서북학회·기호흥학회·교남교육회·관동학회 등도 이러한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학회는 재경 인사들에 의하여 출신지역을 기반으로 조직되었다. 지역을 기반으로 조직된 학회도 분산적·고립적인 활동에서 점차 벗어나 연대를 모색하였다. 지회 설립과 운영, 지역 계몽단체와 연계, 본회를 중심으로 한 상호 지원 임원진의 중복 등은 이를 반증한다.⁶⁾ 특히 지회 설립인가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시찰위원’이나 ‘권유위원’ 파견은 이러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지역 단위 興學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계기를 맞았다.

계몽운동 확산과 진전은 주민들의 자발적·경쟁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영역은 크게 교육운동·언론운동·종교운동·국학운동·국채보상운동 등이었다. 근대교육운동은 사립학교설립운동과 야학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의무이자 사회적인 책무나 마찬가지였다. 향학열 고조는 활발한 근대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으로 이어졌다.⁷⁾ 홍원지역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결코 예외적인

4) 이 부분은 김형목의 「한말 홍원지역 계몽운동 전개와 강우규의 현실인식」을 크게 참조

5) 김형목, 『대한제국기 야학운동』, 경인문화사, 2005, 103~110쪽.

6) 유영렬, 『애국계몽운동 I-정치사회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2)』,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81~85쪽.

상황은 아니었다. 오히려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선도적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함경도 계몽운동에 가장 영향을 준 단체는 서우와 한북흥학회를 합친 서북학회와 신민회였다. 서북학회는 각지에 協成學校 支校 70여 개교를 인가하는 한편 이에 부응하여 협회 내에 속성과정의 야학사범과를 운영하였다. 이들 졸업생은 장차 지교 교사로서 충원하는 등 조직적·체계적인 교육운동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협성학교 내에 汲水商夜學(일명 물장수야학·필자주)도 운영하는 등 야학을 통한 근대교육 보급에 노력을 기울였다. 박은식은 이를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는 ‘원천’으로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⁸⁾ 물장수야학은 일제강점기까지 향학열을 상징하는 ‘대명사’나 다름없었다. 흥원 출신인들도 서북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본회에서 현지로 직접 시찰단을 파견하였다.⁹⁾ 이는 지역적인 연대를 통한 계몽운동 열기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요인이었다. 새로운 변화는 내부적인 각성과 외부적인 ‘충격’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었다.

한말 최대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도 李東輝 등의 분투로 강화도를 비롯한 서북지역에 普昌學校 지교를 무려 100여 개교 이상이나 설립하였다.¹⁰⁾ 강화도 내에만 56개에 달하는 지교를 운영할 정도로

7) 김형목, 『대한제국기 야학운동』, 113~116쪽.

8) 『황성신문』 1908년 2월 20일 논설 「勤勉勞働同胞夜學」, 11월 24일 잡보 「水商會議」: 박은식, 「勞働同胞의 夜學」, 『서우』 15, 19~20쪽: 김형목, 「노동야학회」, 『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9) 이송희, 『대한제국말기 애국계몽학회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1985, 77~83쪽. 서북학회 흥원지회가 설립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1909년 2월 이후 시찰단이 파견된 지역은 대부분 지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흥원에 파견된 시찰위원은 崔恒鏞이었다(서북학회, 「회사기요」, 『서북학회월보』 12, 46쪽: 서북학회, 「회사기요」·「각지방학사시찰위원보명」, 『서북학회월보』 14, 53·56쪽).

10) 김형목, 『대한제국기 강화지역의 사립학교설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사실상 ‘의무교육’이나 마찬가지였다. 지교 임원이나 후원회를 주도한 인물 대부분은 신민회 회원이거나 대한자강회·대한협회·서북학회 지회원 등이었다.¹¹⁾ 특히 이동휘는 고향인 단천을 중심으로 활발한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함경도지방에서 이동휘의 사회적인 영향력은 이처럼 대단하였다. ‘그의 말 한마디에 한 학회가 조직되고, 눈물 한 방울에 한 학교가 설립될’ 정도였다. 서북지방이나 관서지방이 근대교육 ‘중심지로 발전한 것은 이종호·이동휘와 같은 인물들 활약에 크게 힘입었다. 桂奉珦가 북간도지역 ‘민족학교’ 역사교과서로 저술한 『吾鬻不忘』에도 이러한 구절을 엿볼 수 있다.¹²⁾ ‘사립학교 설립=명망가 의무’라는 인식은 당시 교육운동을 추동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다. 이는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양상이었다.

이동휘의 활동은 대중강연과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구국운동으로 ‘방향전환’을 의미한다. 곧 한국인의 정치활동이 봉쇄되는 상황에 직면하자, 그는 정치개혁운동에서 점차 대중계몽운동으로 전환하는 등 정세흐름에 부응하고 있었다.¹³⁾ 서북지방과 관서지방으로 시찰은 지역사회 변화를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시세 변화에 대한 각성과 근대교육 보급에 의한 민지계발은 궁극적인 의도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흥원지역에도 그대로 전파되었다. 이동휘 노력으로 영흥군 내에만 80여 개교 설립 계획에 일본인도 동참하는 상황이었다.¹⁴⁾ 이곳에 한말 설립된 학교는 47개교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11) 서북학회, 『회계원보고 제26호』, 『서북학회월보』 9, 1909, 58쪽 : 조현옥, 「서북학회의 관서지방 지회와 지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2000.

1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2, 1968, 623쪽.

13) 김형목, 「대한제국기 강화지역의 사립학교설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27쪽.

14) 『황성신문』 1908년 9월 18일 잡보 「日警官贊成」, 12월 12일 잡보 「雪天牡丹」.

홍원지역 근대교육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홍원군수는 1899년 신사유지 등과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다. 당시 교사진이나 교과목 등은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시세 변화에 부응하여 근대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한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군수에 대한 치적을 이유로 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¹⁵⁾ 이어 동경면 金啓源·金永俊·金炳熙 등 50여 명은 校舍·田土·柴場을 마련한 후 학교 승인을 학부에 요청하였다. 유지신사 50여 명이나 동참한 사실은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됨을 의미한다.¹⁶⁾

이러한 가운데 홍원공립소학교가 설립되는 등 공교육에 의한 근대교육이 시행되는 계기를 맞았다. 물론 초기에는 교육시설 부재, 불충분한 교재, 빈번한 교사진 교체 등으로 교육적인 성과를 거두기 역부족이었다. 주민들 적극적인 참여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었다. 함남관찰사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자본금 5천 냥을 하사하는 등 교육내실화를 도모했다.¹⁷⁾ 학무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자문뿐만 아니라 운영비 확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홍원공립보통학교 발전은 이들의 노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을사늑약’ 이후 분위기는 이전보다 확산되었다. 학산면 학산리 郭君瑞는 기존에 운영하던 私塾을 사립학교로 전환하자, 주민들 중 일부는 크게 반발하였다. 그는 『대한매일신보』를 구독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주민들을 효유하는데 활용했다.¹⁸⁾ 남산과 晩成書塾도 청년자제 교육을 위한 南成學校로 개칭하였다. 교장 朴廷河와 교사 韓膺敎는 열성적으로 교무에 임하여 교세가 날로 번성하기에 이르렀다. 학부는

15) 『시사총보』 1899년 3월 30일 잡보 「洪倅願留」.

16) 『황성신문』 1901년 2월 23일 잡보 「鳩財設校」, 3월 4일 잡보 「鳩財設校」.

17) 『大韓毎日申報』 1907년 11월 7일 잡보 「洪校維持」.

18) 『大韓毎日申報』 1907년 12월 22일 잡보 「郭氏熱心」.

이를 인기하는 등 후원지역을 ‘대표’하는 사립학교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다.¹⁹⁾ 인근 각지에 신설된 사립학교는 남성학교 운영안을 모델로 삼을 정도였다. 사립학교는 근대교육운동을 주도하는 중심지로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²⁰⁾

용원사(일명 용원면·필자주) 유지신사 金翰奎·韓明義 등은 유신시대에 부응하여 관내 14개 사숙을 전환하여 攀龍學校를 관내에 14개교나 세웠다. 이에 부응하여 金鎮鳳·徐廷淑·金蓮源 등은 의연금을 모아 교재를 다수 구비하였다. 이들은 유능한 교사를 초빙하기 위하여 서울로 사람을 파견하는 등 교육내실화를 도모했다. 상인들 조직인 후원상회소 임직원 등도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분위기였다.²¹⁾ 후원군수는 행정적인 지원과 아울러 재정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중성학교·중앙학교·예수교학교·영명학교·중앙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열에 부응하였다. 다음은 강우규가 동지들과 영명학교를 세운 사실을 보여준다.

○洪原郡 私립靈明學校는 任員 朴致英 姜燦九 申永均 李基洙 諸氏が 熱心視務호 結果로 學徒가 日進호야 七十餘名에 達호였는디 尙且西北學會 支會를 組織호는 中이라더라.²²⁾

○洪原郡 私立靈明學校는 該地有志紳士가 熱心贊成호야 進就之望이 大有호디 該校維支方針에 對호야 校長 朴致英 副校長 申永均氏 以下 一般任員이 隨力出捐호야 金三百七圓五十錢을 收合호였다더라.²³⁾

○후원군 통원면 령덕리 영명학교에서는 임원 제씨와 학성일동이 그 동리

19) 『황성신문』 1908년 5월 24일 잡보 「兩齋合校」: 『大韓每日申報』 1908년 5월 25·29일 잡보 「兩齋合校」.

20)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4일 잡보 「請助反對」.

21) 『황성신문』 1908년 6월 10일 잡보 「攀龍命校」: 『大韓每日申報』 1908년 6월 3일 광고.

22) 『大韓每日申報』 1909년 11월 24일 학계 「靈明日明」.

23) 『大韓每日申報』 1910년 1월 15일 학계 「靈明其明」: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15일 학계 「의연금기부」. 신문에서는 강원도 후원으로 언급했으나 함경남도의 오기이다.

괴독교에 입회하고 그 학교 소용물과 기와집 소오간을 그 교회에 기부하였다
더라.²⁴⁾

그는 박치영·신영균·박기수 등과 영명학교를 세웠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강찬구는 바로 강우규이다. 학생들은 70여 명에 달할 만큼 대단한 호응을 받는 가운데 향학열이 확산되었다. 이들은 장차 흥원지역 계몽운동 확산을 위하여 서북학회지회 조직을 모색하고 있었다.

1910년 7월에 거행된 졸업식과 진급식에는 원근 각지에서 유지신사가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참석자들은 많은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향학열을 격려하였다. 더불어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임원진 개편도 단행되었다. 교장은 康濬明, 교감은 黃澄根, 학감은 金鳳一, 회계는 金炳庸, 서기는 金治燮, 교사는 朱榮燮 등이었다.²⁵⁾

한편 교육운동에 힘입어 학생과 유지신사를 중심으로 洪原學生親睦會도 1909년 8월 8일 조직되었다. 창립 당시 임원진은 회장 학무위원인 郭同鶴, 부회장 高命逸, 평의장 羅炳善, 총무 崔郁, 총무 安泳洙 등이었다. 함남학생친목회 총대 鄭寅燮은 창립일에 참석하여 학생친목회 필요성에 관한 연설로 참석자를 격려하였다. 방청객은 수천 명에 달하는 등 대단한 성황을 이루었다. 재경유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찬사와 아울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²⁶⁾

1909년 8월 군수 鄭冕鎭은 관내에 설립된 20여 개 사립학교와 공립보통학교를 증축하는 등 열성을 다하였다. 그는 부임 직후부터

24)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16일 학계 「괴독교에 입회」: 『大韓每日申報』 1910년 1월 18일 학계 「一同入敎」.

25) 『大韓每日申報』 1909년 8월 28일 학계 「靈校 卒業」.

26) 『大韓每日申報』 1909년 8월 22일 학계 「親睦盛況」.

進明學校를 직접 설립한 후 교사로서 자원을 마다하지 않았다.²⁷⁾ 다음은 근대교육에 대한 열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

홍원군수 정면진씨는 교육에 열심하여 該郡 경내에 이십여 학교를 설립할뿐더러 해군 공립보통학교를 해군 관사로 移接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리비 20원을 의연하고 또 해군 신사 金鴻根 金河慶 등 제씨가 제반 校務를 담임하고 의연금 1천 8백원을 모집하여 설립 준공한 후 8월 23일에 개학하여 남학도가 130명이요, 여학도가 20여 명에 달하였는데, 해 군수 및 신사제씨의 교육에 열심 찬성함에 대한 칭송이 대단하다더라.²⁸⁾

사립학교 설립운동과 더불어 군수는 유지신사와 협력하여 교육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계기로 공립보통학교는 여학생을 수용하는 등 근대여성교육을 시행하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였다. 근대교육에 대한 주민들 인식은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⁹⁾ 회양학교도 그의 열성적인 교육활동과 맞물려 설립되었다.

군수의 흥학에 유지제씨는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분위기였다. 재정 확충을 위한 의연금의 자발적인 참여는 이를 반증한다. 이들은 「사립학교령」 시행에 부응하여 설립인가를 받는 등 교육내실화에 앞장섰다. 시세변화에 부응한 학생들 단발은 완고배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³⁰⁾ 이러한 현상은 근대교육에 부정적인 인사들에 의하여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강제병합 이후에도 사립학교로서 운영될 수 있었던 배경은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³¹⁾

27)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27일 잡보 「한씨보고」: 『황성신문』 1908년 8월 26일 잡보 「洪倅獎學」, 1909년 10월 2일 잡보 「洪校擴張」.

28) 『大韓每日申報』 1909년 10월 2일 학계 「普通益進」.

29)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26일 잡보 「정군수 권학」, 1909년 10월 2일 잡보 「홍원교육흥양」.

30) 『大韓每日申報』 1909년 9월 18일 잡보 「晦養開學」, 1910년 7월 22일 잡보 「洪校無人」: 『대한매일신보』 1910년 7월 29일 잡보 「단발반디」.

홍원지역 사립학교설립운동은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보다 사숙·서숙 등을 개량하여 근대교육기관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방안 중 하나였다. 물론 과감하게 근대교육을 수용하는 등 시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병희는 십수년 동안 명예교사로 종사하면서 경명학교·광성학교·무성학교 등을 직접 설립하였다. 홍원지역을 대표하는 진정한 육영사업가였다. 그는 전통적인 교과목인 경사(經史) 위주에 새로운 교과목을 일부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었다. 과감하게 교과과정을 ‘혁신적인’ 개편과 더불어 전통을 계승하는 가운데 근대교육을 시행되었다.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쟁을 유도할 수 있었다. 변화에 대한 상이한 입장은 상호간 교류를 통하여 조절하거나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회양학교는 1919년 3월 회양공립보통학교로 변경되어 식민교육기관으로 변질되었으나 학교 취지는 계승되어 나갔다.³²⁾

유지신사가 설립한 景明學校는 경비 부족으로 폐교할 지경에 이르렀다. 임원진 등은 養蒙齋와 居接齋를 비롯한 8개소 전통교육기관에 부속된 전답을 부속하여 달라는 청원을 학부에 청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장 朴一曾, 찬성원 金喆昊·洪淳天·洪性寬, 감독 金奎燮, 학감 金基興·金有根 등은 교육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의무교육 일환으로 학교 유지책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³³⁾ 당시 홍원지역에 설립된 주요 교육기관은 <표 1>과 같다.

31) 『매일신보』 1912년 6월 19일 「晦校團體의 斷髮, 회양학교의 단체단발」, 8월 4일 「奇特한 日巡查, 내지인 순사의 기특한 일」, 1919년 3월 13일 「洪原, 晦陽校公普變更」.

32) 『매일신보』 1919년 3월 13일 「홍원, 회양교 공보교 변경」.

33) 『大韓每日申報』 1908년 10월 10일 잡보 「景校請願」: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10일 잡보 「경명학교 청원」: 『황성신문』 1908년 10월 10일 잡보 「兩齋付校」, 1909년 10월 9일 잡보 「諸氏義務」.

<표 1> 대한제국기 홍원지역 사립학교 현황³⁴⁾

학교명	위치	설립자	교사진	특성	학생수	전거
사립학교	홍원	군수, 유생				시1899.3.30, 5.21
사립학교	홍원 동경면	김계원 등 50여 명			30	황1901.2.23, 3.4; 제1901.3.4
사립학교	홍원 하산 학산리	곽군서	좌동	구속을 사립학교로 전환		大1907.12.22
景明학교	홍원	유지신사	좌동	보교과정	수십 명	황1908.10.9, 10.10, 1909.3.28; 大1908.10.10; 대1908.10.10
광성학교	홍원	김병희	좌동	보교과정		1909.3.28
남성학교	홍원 남산과 만성재	유지제씨	朴廷夏(박봉양); 교장, 한응교(윤병두); 교사	남산과 만성서재를 합설 운동회 개최	다수	大1908.5.29, 7.4; 황1908.5.24
반룡학교	홍원 용원면	김한규 등		각 면마다 설립	다수	황1908.6.10; 大1908.6.3
무성학교	홍원	김병희	좌동	보교과정		황1908.3.28
진명학교	홍원	정면진 (군수)	정면진 등	보교과정		황1908.8.26
회양학교	홍원 서포청면 삼호	정면진, 유지제씨	조병구	보교과정	50 (수백 명)	황1909.9.10; 대1910.7.23; 대1912.6.19, 8.4, 1919.3.13
중성학교	홍원 용원면		고창유; 교장	진급시험	수십 명	대1910.6.7, 6.8
사립학교	홍원		고명일; 교장	보교과정		대1910.7.20
중앙학교	홍원	유지제씨	좌동			대1910.7.28
예수교학교	홍원 본동	선교사	신도	교리, 보통과	다수	대1910.7.28
靈明학교	홍원 용원면 영덕리	유지신사	강준명; 교장 황영근; 교감 김봉일; 교감 김병용; 회계 김치섭; 서기 주영섭; 교사	강찬구(강유구) 보교과정 진급시험, 수료식	다수	대1910.1.16, 4.7, 7.28; 大1909.11.24, 1910.1.18, 4.7, 8.28
中陽학교	홍원			속성 보교과정	다수	大1910.8.28

한편 야학운동도 근대교육운동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함경도

34) <표 1>의 시는 『시사총보』, 제는 『제국신문』, 황은 『황성신문』, 대는 『대한매일신보 (한글판)』, 大는 『大韓毎日申報(국한문판)』, 매는 『매일신보』를 각각 의미한다. 당시 설립된 사립학교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구체적인 학교명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군수 정면진 활동은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야학운동은 함흥군 신중면 普成夜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1906년 설립된 이래 1930년대까지 운영된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농민야학이었다.³⁵⁾ 1920년대 후반 조선농민사가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연원은 대한제국기 근대교육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야학을 통한 근대교육 보급은 민지계발을 위한 가장 유효한 방안 중 하나로서 인식·실행되는 계기를 맞았다.

Ⅲ. 함경도 각 지역 국채보상운동 단체 결성과 취지서

함흥군 국채보상 기성회는 발기인 朱璋謙을 비롯해 75명으로 구성된 조직이었다.³⁶⁾ 발기인 주장점은 1900년 함경북도 유생들이 중추원장에게 올린 ‘과거와 달리 예와 의리를 잃는 현 상황을 개탄함’이라는 헌의서에 동참한 인물이다.³⁷⁾ 또한 1904년에는 함경도 관찰부 주사에 임명되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발기인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함흥군 국채보상기성회 취지서를 작성하였다. 취지서는 전국의 국채보상의 시작과 그 전개과정을 설명하면서 나라 빛의 청산이 바로 ‘독립의 공고’라고 강조하였다. 이 취지서에서 보듯 국채보상운동은 국민들의 애국정신과 애국운동을 경제, 재정 등 실질적 측면과 결합시키고 일제의 경제침략에 대한 저항운동을 고양시켰다.³⁸⁾ 특히 독립의 공고는 경제적 자립을 넘어 경제적 독립을 통해 국권회복을 이루고자 했던 강한 열망의

35) 조동걸,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과 농민야학」, 『한국사상』 16, 한국사상연구회, 1978; 조동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1978, 218쪽에 재수록.

36)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국채보상운동 자료집』 1, 188~189쪽.

37) 『고종시대자료집』 6 참조.

38) 신용하, 「애국계몽운동에서 본 국채보상운동」, 17쪽.

발로라고 할 수 있다.

함흥 주북면은 대한협회 함흥지부 회원을 역임했던 한종만 등이 발기인으로 국채보상청년회를 결성하였으며 이 단체는 보다 구체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첫째 국채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둘째 의연금은 많고 적음을 관계하지 않고, 셋째 의연금은 모아서 군 보상회로 보내며, 넷째 의연금을 낸 사람의 성명과 금액을 신문에 게재하며, 다섯째 의연금의 모집소는 주북면 장동 입구 약국으로 한다고 했다. 이 단체의 발기인은 앞서 언급했던 한종만을 비롯하여 안승현, 한홍식, 한식주, 주두찬, 주영표, 이성춘, 박제0, 홍현호 등이다. 발기인 가운데 주두찬은 1910년대 주북면 사립 樂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이 학교의 교사 신축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³⁹⁾ 그는 1920년대에는 함흥군 면협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였다.⁴⁰⁾

함흥지역에서도 주북면은 국채보상관련 단체들이 비교적 많이 조직된 곳이다. 주북면 장동어구 국채보상 청영단성소는 1907년 3월 11일 발기회를 가졌으며, 발기인은 한영빈, 홍연두, 한명훈, 박희석, 홍봉수, 이길혁, 박몽호, 박상희, 김명률, 한호수, 황화용, 한구순, 최경호, 한봉훈, 이희관 등 16명이며, 그 가운데 이희관은 맹인이었다.⁴¹⁾

원산의 가장 큰 경제단체인 원산향 상회소에서는 국채보상금 모집 취지서를 발표하였다. 민족적 自衛, 즉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군주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이를 실현하는 길이며, 모든 국민과 단체가 똑같이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1907년 3월 원산 상회소 평의원 신석부 씨와 학교 생도 이영술

39) 『매일신보』 1916년 9월 3일, 「함흥에서, 교실신축」.

40) 『매일신보』 1929년 11월 20일, 「함흥군하 19면협의원선거종료」.

41)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국채보상운동자료집』 1, 234~235쪽.

씨가 국채보상을 위하여 이번 2월 5일에 함께 시장에 나가서 그곳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권유하며 연설하기를, “대저 우리 이천만동포가 모두 외국의 노예가 된 줄로 각자가 모두 알고 있는 바, 통상적으로도 빚을 진 노예라 하고 있으니, 지금 국채가 1,300만 원에 이르러 있는데 누가 외국의 노예이며 누가 근심 걱정이 있지 않으리오 다행히 다소나마 국운이 회복되고 민심이 감동하여 일어나 한 푼의 돈이라도 거두어 갚고자 하니 여러 형제들은 많고 적음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⁴²⁾라고 하니, 시장을 가득 채운 남녀노소가 감격하여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의연금으로 낸 돈이 많았다.

1907년 5월 나만하, 조여극, 오병준이 발기인으로 조직한 원산항입자 계보의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취지서를 발표하였다. 처음 취지문은 세계인들이 대한제국인들을 야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나라의 환난이 있을 경우 ‘백성’들도 하나같이 해결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외채로 나라의 존망이 위태롭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1907년 6월에는 함경남도 영흥군에서 국채보상 감반회가 조직되었다. 전국에서 ‘감반회’를 조직해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한 것은 영흥군이 유일한 곳이 아닌가 한다. 이 조직의 발기인은 권영호와 강염주이다. 취지서는 다음과 같다.

(전략) 대저 본군은 태조대왕의 고향으로 선왕이 남기신 은택이 넘쳐남이 이미 오래이므로 나랏일을 받드는 것이 마땅히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갑절은 더해야 하는 데 국채보상 단체가 설립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약간 내는 의연금은 책임이나 면할 정도일 따름이요 목적을 달성할 기약이 아득하니 이와 같이 하고 만다면 외지 사람들의 비웃음이 어찌 부끄럽지 않을 것이며, 나라가 망하고

42)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국채보상운동자료집』 7, 233~234쪽.

백성이 노예되는 조짐은 지금 벌써 드러나고 있으니, 무릇 의로운 국민이라면 슬퍼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중략) 대개 우리 동포가 이미 뜨거운 정성이 없다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조금의 열성이라도 있다면 이 일을 이행하는 것은 아주 쉬울 것입니다. 한 사람마다 1환 60전을 5만 4천여 인구에 합계하면 86,400원을 갚을 수 있으니 1군에서 1도에 이르고 1도에서 한 나라에 이르러 2천만 동포가 사람마다 이와 같이 하면 1년 내에 빚을 청산할 수 있고 다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 등이 감반회를 발기하고 이에 취지를 널리 알립니다. 바라건대 우리 동포는 각각 모름지기 마음을 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어찌 국민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각각 힘쓰고 힘쓰십시오.⁴³⁾

영흥국채감반회 회장 권영호는 1858년에 함경북도 영흥군 흥인면에서 태어났으며, 진사로서 관직에 진출하였다. 이후 함경남도 영흥군 향교 도교수 및 도유사를 역임했으며, 함경남도 관찰사 주사였다. 러일전쟁 때는 접응도감을 역임하였고, 사립 협성학교 교감과 풍동학교 교장을 지냈다. 경술국치 이후에는 영흥군 축산 조합장을 지냈다.

1907년 3월 26일 함경남도 정평군 고산면민 대회에서 함흥에 거주하는 변도건은 국채보상의거는 민권자립의 기초라고 역설하였다. 그 연설문은 다음과 같다.

대저 국채보상의 의무를 우리 2천만 동포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것은 발기한 서상돈 씨의 선각자로서의 책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되 이러한 의거는 한 개인의 사사로운 계획이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로 천명이 이룬 것이라 하니,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대저 이 국채에 관한 것을 간략히 말해보겠습니다. 빚을 낼 때 당국자가 한 짓은 우선 잠깐 체쳐두고 일본이 본디 가난한 나라로 외국의 부채가 많은데 도리어 우리 대한제국에 빚을 준 것은 아라를 사려는 술책이니,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불과 몇 년 안에 국가와 민족이

43)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위의 책, 388~389쪽.

함께 폐망할 것인데, 오늘에 우리 2천만 동포가 국채보상의 의무를 사람들이 모두 알았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이 우리 동포의 무고함을 돌아보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모두 의연금을 내어도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각기 자기의 권리를 세우는 것이니, 장하고도 시원합니다(중략) 천시에 비유하자면 국채 보상의 취지로 공함이 발기한 날은 동지에 陽이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국채보상을 청산하는 날은 입춘대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물주가 사사로움이 없어서 뿌리를 내린 것은 북돋우어주고 기울어진 것은 엎어버리나니, 원컨대 여러분들은 모두 남이 한번 하여 능하거든 자기는 백번하고, 남이 열 번하여 능하거든 자기는 천 번 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으십시오.⁴⁴⁾

대구지역 선각자 서상돈의 열정과 의지를 높이 사면서 함경도 역시 이에 동참하여 새로운 조국의 앞날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개인과 사회,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채보상에 동참하는 길이 2천만 백성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라 하였다.

함경남도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쪽은 북청군, 서쪽은 함주군, 서북쪽은 신흥군, 남쪽은 동해에 접해 있다. 홍원지역 인사들도 전국적인 연대에 의한 모금활동을 주장하였다. 또한 절대적인 금언이 아니라 국채를 보상하는 그날까지 ‘한시적인’ 단연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소식을 접한 金鍾龜 · 崔中模 등은 국채보상을 위한 의연금 모집에 거액을 내놓았다. 이에 김구하 · 朴文若 등은 조직적인 모집활동을 위한 興義會를 조직하였다. 1907년 5월이다. 홍의회 임원진은 총무 김구하, 창의연설 崔奎鏞, 재무감독 박인포 · 김선준, 문서조사 全京祐 등이었다.⁴⁵⁾

44)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위의 책 3, 225~226쪽.

45)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29일 잡보 「洪原郡 義捐」, 『황성신문』 1907년 5월 25일 잡보 「洪原郡義舉」.

한편 길주군은 함북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1919년 3.1운동 때 천도교 세력이 가장 먼저 포교되어 주도적으로 이끈 곳이기도 하다. 길주군 수진보성학교 국채보상혈명회 취지서가 발표되었다. 이 취지서는 1907년 3월 26일자 황성신문에 게재되었으며, 대구에서 김광제, 서상돈 등이 주축이 된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 2월 16일에 발기되어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뒤만에 나온 것이다. 취지서에서는 국가 채무는 결국 국가 구성원들을 노예의 지위로 떨어뜨리며 이것은 대를 이어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전 구성원이 합심하여 극복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모인 의연금을 가지고 은행을 설립하여 부강한 나라의 초석을 다져 세계의 나라와 동등하게 될 수 있다고 했으며, 이를 위해 국채보상의 실행을 다음과 같이 다졌다.

- 첫째 일본에 대한 국채 1,300환을 보상하기로 굳게 맹세함
- 둘째 십 개월을 약속하고 음주를 끊고 흡연을 끊고 혹 5전 혹 10전 씩 적당량을 내도록 하여 1환을 모두 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
- 셋째 의연금을 내는 사람이 본회에 납입하는 액수대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줌
- 넷째 의연금 수합소는 태성상의사(泰成商議社)로 확정함
- 다섯째 사람이 몇 개월 몇 전을 먼저 내고 먼 곳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가는 곳 의회에 끝까지 내고 영수증을 받음으로써 함께 나라를 세움에 남쪽, 북쪽에 구애하지 않고 원래의 금액을 채우도록 하는 것도 무방함
- 여섯째 납입 금액과 의연금을 낸 사람의 성명을 매달 마지막에 널리 알림
- 일곱째 각 학교에 취지서를 널리 알려서 서로 권면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함⁴⁶⁾

1906년 12월 일본수비대가 길주군수 심혁지에 대해 음주 후 폭행을 가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수진보성학교 학생들 3명이 이에 대해

46)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자료집』 1, 149쪽.

항의하기도 했다.⁴⁷⁾ 의연금 수합소는 ‘본군 태성상의사’로 한다고 했는데 후일 발기인이었던 정만선, 정일선 등은 태성사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이미 국채보상운동 당시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회사 조직을 활용하여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던 것 같다. 발기인 가운데 정만선은 길주군 사립학교 연합회 대운동회 때 기부금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⁴⁸⁾ 박이찬은 서북학회 및 대한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경술국치 이후 길주군 길성면 면장으로 1925년까지 활동하였다. 물론 1919년 3.1운동 당시에도 길성 면장으로 활동하면서 함경북도 장관이 주최하는 유지 간담회에도 참석하였다.⁴⁹⁾

길주군에서는 수진보성학교 국채보상취지서와 길주군 국채보상 혈맹회 취지서가 있다. 길주군 국채보상 혈맹회 취지서는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4일자에 실렸으며, 그 지면에는 국채보상관련 기사도 함께 실렸다.

IV. 미담사례로 본 함경도 국채보상운동

1907년 3월 함경남도 홍원군에서 국채보상에 대하여 흥인회를 창설하고 보조금 수천 원을 모집하였다. 흥인회의 구성은 총무 김구하, 창의연설 최규용, 재무감독 박인포, 김준선, 문서 조사 전경호 등이다.⁵⁰⁾

47) 『공립신보』, 1907년 5월 10일, 「학생의용」.

48)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12일, 「륙교운동」. 정만선은 경술국치 이후 자본금 15만원으로 길주군에 주식회사 태성사를 설립하여 주로 국내외 무역업 사업을 펼쳤다.(『朝鮮總督府官報』 1917년 6월 28일). 1923년에 태성사는 자본금 20만원으로 규모가 커졌으며, 정만선은 대주주로 활동하였다.

49) 『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七冊ノ内五, 「有志懇談會狀況報告ノ件」(1919년 5월 20일).

50)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자료집』 4, 177쪽.

영흥군에서는 김원국의 부인 엄씨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국채보상에 의연하기 위해 본사로 1환을 보냈으며, 그 부인의 애국 정신을 칭송하고 탄복했다고 한다.⁵¹⁾

1907년 4월 漢北興學會에서는 이준, 오상규, 양효건 등 36명이 국채보상 취지서를 발표하고 함경남북도 각 군에 의무금을 모집하려고 회관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⁵²⁾ 1907년 4월 함경남도 명천군에 거주하는 전 군수 김하련을 비롯하여 김병주, 현창의 등 10여 명이 국채보상회를 설립하여 군내에 통지하고 음력 5월 이내에 의연금을 모금하여 경성으로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⁵³⁾

1907년 4월 단천군에서는 군민들이 국채보상의 의무로 400여 환을 모집하여 의연금을 내었다. 그 의연금 책임자는 김중성이었으며, 단천 황곡면에 거주하는 염상섭은 농사에 쓰던 농우를 판 돈 20환을 의연금으로 낼 정도였다. 그밖에도 이양규는 집안의 닭을 팔아 의연금을 내었다고 한다.⁵⁴⁾

1907년 5월 함경남도 함흥군 주북면에 사는 전 감찰 종만씨는 본래 가난한 의사로서 약포를 경영하여 생계를 삼았다.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세 칸 초가집뿐이었는데 국채보상을 위해 집문서를 저당잡혔으며, 20환을 마련하여 군회에 의연금으로 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김씨는 바느질로 번 돈으로 은가락지를 팔아서 4환을 의연금으로 보냈다. 인근 군사들이 ‘그 남편에 그 아내’라고 칭찬이 자자했다고 한다.⁵⁵⁾

51)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자료집』 7, 263쪽.

52)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자료집』 4, 216쪽.

53)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자료집』 4, 268쪽.

54)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자료집』 7, 426~427쪽.

55)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자료집』 4, 283쪽.

함흥군에서 국채보상의연금을 낸 이들은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을 보이고 있다. 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생, 승려, 기생, 머슴들도 참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연금은 많게는 통정 박인흡이 낸 100원부터 적게는 20전까지 있었다. 자신의 처지에 맞게 의연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함경북도 길주군 국채보상의금소에서도 같은 군에 거주하는 조선 왕실 별파 이씨 종중에서 1,000환을 의연하였으며, 경주 최씨 종중과 양천 허씨도 각각 1,000환의 의연금을 내기로 약정하였다.⁵⁶⁾ 4월 함남 정평군에서도 이용일, 노유옥 등 23인인 주축이 된 구개보상지회를 발기하여 국채보상 의연금을 모금하였다.⁵⁷⁾

1907년 4월 함남 북청군 함남보성학교 학생들 역시 국채보상에 대하여 서로 일러 이르기를, “우리들이 지금 나라를 위하여야 할 때에 특별히 의연을 표하는 자가 없을 수 없다”고 하고, 각자 자신들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판매하여 모은 10원을 황성신문사로 부쳤다.⁵⁸⁾

1907년 6월 함경남도 홍원군 상민들은 각 군마다 국채를 보상하기 위하여 각각 의연금을 낸다는 소식을 대한매일신보에서 접하고 정성으로 의연금을 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 간의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의연금을 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⁵⁹⁾

1907년 6월 함경북도 성진항에 거주하는 허태화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국채보상에 대하여 의연금 13원과 총합소 기부금 1원을 미리 내었으며, 군민들에게 의연금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고 한다.⁶⁰⁾ 또한

56)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자료집』 7, 468쪽.

57)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자료집』 7, 580쪽.

58)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자료집』 7, 308쪽.

59)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자료집』 3, 322쪽.

60)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자료집』 7, 556쪽.

갑산에서도 같은 해 6월 전 오위장 김준항이 주축이 되어 12인이 모은 30원을 먼저 의연금으로 납부하였으며, 군 전체에 의연금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상인, 광산사람 및 부녀자들이 낸 의연금의 합계가 591원에 달했다.⁶¹⁾

함남 갑산에서는 藥材都局이 없어서 500리 멀리 함흥 땅에서 약을 사서 싣고 와야 하여 藥種穴材가 매우 많아 위생에 손해가 없을 수 없었다. 갑산군 남쪽을 방비하였던 전 오위장 김준항은 본래 북청 사람으로 자본 1,000원을 염출하여 도국을 개설하고 좋은 약을 매매하여 널리 지역을 구제하여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였는데, 이번 국채보상 기성회 공함이 부쳐진 뒤 곧 주변을 설득하여 12인이 모은 30원을 먼저 납부하고, 銅鑛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연설하니 상인, 광산 사람 및 부녀자들이 의연금 합 591원 50전을 납부한 것도 모두 그의 권고에서 나온 것이었다.⁶²⁾ 문천군에서도 군내 모임인 국채보상에서 이선용이 주축이 되어 대한매일신보에 의연금 1환을 기부하였다.⁶³⁾

1907년 7월 함남 원산항에서는 걸인들이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는 보기 드문 사례가 있었다. 이른바 김원명과 박원서가 발기인으로 원산 국채보상 걸인계가 조직되었으며, 나라의 위급함을 자신들의 미력한 힘을 보태고자 대한매일신보에 의연금 4원을 기탁하기도 했다.⁶⁴⁾

V. 맺음말

국채보상운동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거족적 민족운동으로 승화

61)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자료집』 7, 558쪽.

62)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자료집』 7, 558쪽.

63)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자료집』 7, 563쪽.

64)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4일, 「원산항걸인등」.

되었지만 제국주의 일본의 무력 앞에서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국채보상을 통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는 자발적인 의연금 모금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참여를 통한 소중한 경험은 자신감을 배가시키는 동시에 사회적인 책무를 느끼는 생활현장으로 다가왔다. 함경도의 국채보상운동은 한반도의 변방이자 대륙의 관문으로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 전 계층에서 나타났다.

변방 지역인 함경도 국채보상운동은 조국의 앞날을 위해 전 국민이 의연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데 그 특징 있다고 할 수 있다. 함경도 각 지역마다 국채보상운동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취지서를 발표하여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咸興郡에서 朱璋謙 · 任百禹 등 51인이 國債報償支會를 설립하고 비분강개하는 간절한 말로써 취지서를 발표하고 의연금을 모집하였다.⁶⁵⁾ 뿐만 아니라 함경도 국채보상운동에서 처음 발기인대회를 개최할 때 기존 사립학교의 인맥들을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도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端川郡에서 李秉德 · 金麟化 씨 등 21인이 國債報償所를 조직하고 國債報償歌를 만들어 각처로 전파했다.⁶⁶⁾ 단천군 국채보상가처럼 애국심의 경계는 지역을 초월하며, 비록 대구에서 출발했지만 그 열기는 한반도에 퍼졌기 때문에 함경도 국채보상운동처럼 변경에도 애국심은 강했던 것이다.

65)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자료집』 4, 171쪽.

66)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자료집』 4, 174쪽. “端川郡의 鄭南俊 씨는 원래부터 의기가 높은 선비로 온 고을이 칭찬하였습니다. 추수한 것이 수백 포에 이르렀는데, 형제가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미천한 사람으로 식견이 얕으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의 형세를 보니, 우리의 의무를 다하여 국채며 교육에 우리 가산을 모두 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입에 풀칠할 방법은 있을 것이니 절대로 아까워하지 말자.”고 하니, 그 말을 듣는 자는 감탄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자료집』 4, 273쪽).

물장수야학(일명 급수상야학)은 대한제국기는 물론 식민지시기 한국인의 교육열을 방증하는 역사적인 산물로서 자리매김할 수 없었다. 야학을 통한 근대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책무를 절감함으로 엄중한 식민지배에도 민족해방운동을 견지하는 결정적인 에너지원이 되었다. 함경도 지역은 조선시대 이래 변방지역으로 인식되어 많은 차별을 받아온 소외된 지역이었다. 조선후기에 사회적인 변동과 더불어 중앙 정치무대로 진출하는 등 사회적인 의식도 변화를 거듭하였다. 을사늑약 이후 한북흥학회가 조직되는 등 근대교육 보급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어 서우와 통합한 서북학회가 조직됨으로 서울로 유학하는 인물들이 등장했다. 특히 북청인들은 물장수로서 독점적인 지위로 서북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향학열을 고취시켰다. 이종호, 이준, 오상규, 이동휘 등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주역이었다. 걸인부터 이준열사와 이동휘처럼 걸출한 인물들이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함경도 국채보상운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대한매일신보』, 『태극학보』.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8 政治編, 亞細亞文化社, 1984.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국채보상운동 자료집』 1, 2, 3, 4, 7, 10.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二拾五年誌』, 1931.

『日本外務省文書』(Reel 637, MT33335), 「滿洲ニ於ケル橫濱正金銀行金
券ノ發行及朝鮮銀行滿洲支店設置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農事試驗場一覽』, 1931.

朝鮮銀行, 『鮮滿經濟十年史』, 1919.

細川嘉六, 『植民史』, 東洋經濟新報社, 1941.

『韓末近代法令資料集』 4, 國會圖書館, 1971.

遼寧省檔案館, 『滿鐵的成立』, 遼海出版社, 2005.

波形昭一, 『日本植民地金融政策史の研究』, 早稻田大學出版部, 1985.

中村正則 外, 『經濟思想』-日本近代思想大系 3, 岩波書店, 1989.

이노우에 유이치 지음, 석화정 · 박양신 옮김, 『동아시아철도국제관계
사』, 지식산업사, 2005.

『衆議院議事速記錄』 권 2(영인본:태산), 1992.

김상기, 『한말 전기의병』,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9, 2009.

조동걸, 『조동걸 저술전집』 4 대한제국의 의병투쟁, 역사공간, 2011.

신용하, 「홍범도 의병부대의 항일무장투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 1986.

장세운, 『홍범도의 독립전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홍영기, 『한말 후기의병』,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1, 2009.

김형목, 『충청도 국채보상운동』, 도서출판 선인, 2016.

- 김상기, 「한발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와 이념」, 『충청문화연구』 10, 2013.
- 하원호, 민원기, 「개항기 함경도지역의 풍흉과 원산의 상품유통」, 『한국사학보』, 2015.
-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 지역민의 국가의식」, 『진단학보』 136호, 2021.
- 한상구,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전국적 양상 연구」, 『인문연구』 7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 조재곤, 「러일전쟁 시기 함경도 전투의 전개과정」, 『군사』 86, 2013.
- 박희진, 「함흥시 도시공간의 지배구조와 탈주체의 삶」, 『북한연구학회보』 17-2, 2013.
- 현명호, 「대한제국기 원산항 노동자의 근대적 노동운동」, 『규장각』 56, 2020.

Hamgyeong-do Provincial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 The Capital of the Periphery is the Center –

Joo Yong Kim^{*}

Abstract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developed in the Hamgyeongdo area, which was on the outskirts of the Korean Peninsula,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almost all classes of residents in the area participated. In particular, against imperial Japan's economic aggression, although the local economy wa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other regions, the amount of fundraising was relatively small, from gullins to officials participated. In addition, a government bond compensation activist was produced and a natural fundraising activity was carried out. Lee Joon and Lee Dong-hwi, prominent figures from this region, did not take care of their safety and participated in the spread of economic independence. The Hamgyeongdo region, which is also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tried to play a central role in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In particular, the valuable experience of Hamgyeongdo people through participation also served as a catalyst for revitalizing the night school movement, a form of the modern educational movement.

Keyword: Hamkyongdo,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fundraising activities, Lee Jun, Lee Dong Hwi

^{*} Assistant Professor, Korean Chinese Relations Institute, Wonkwang University
(E-mail: kimsu8590@wku.ac.kr)